

시민이 추천한 책, 시민이 읽는다

광주 푸른길 오븐 '책방 심가네박씨'

‘인문지행’ 심옥숙·박해용 부부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받아 진열
일주일에 3일 인문지행 정기 강좌
지역 출판물 코너 따로 만들어
지역작가 발굴·독자 만남 추진



인문학 모임 '인문지행'을 운영하는 박해용·심옥숙 부부가 동구 푸른길에 문을 연 '책방 심가네박씨'.

허수경의 '너 없이 걸었다', 황현산의 '밤이 선생이다',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 김종영의 '지배받는 지배자', 최진석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진열장 위에 놓인 '책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새로 생긴 서점의 골목전이다. 동네 서점의 책 목록은 책방의 정제성과도 닮아 있다.

광주 동명동 푸른길에 지난 5월말 '책방 심가네박씨'(동구 동명로 67번길 22-2)가 문을 열었다. 주인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모임 '인문지행'을 이끌고 있는 박해용·심옥숙 부부다. 재미난 책방 이름은 두 사람의 성에서 따왔다. 부부는 지난 3월 공간을 마련하고 아들과 함께 직접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이 책방은 기존 작은 서점들보다 공간이 넓다.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널찍한 책상도 갖추고 있다. 책방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 공부방 역할도 한다. 4년전부터 광주역 인근 작은 공간에서 함께 해온 '인문지행' 정기 강좌 공간으로 활용된다.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곳이 푸른길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자주 하고는 했는데 길을 때마다 조그마한 책방같은 거 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라는 게 서점에서 물건처럼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어느 날 마음이 통해 부동산을 찾았고, 딱 이 공간을 발

견한 거죠. 동네 분들이 책방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원래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동명동에 놀러나왔을 때 들들 공간이 있어 좋다고 하시구요."

광주일보 '월요광장' 필진이기도 한 심옥숙씨는 "서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이 언제가는 책방 주인이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며 웃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현대 독일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씨와 같은 대학에서 문예철학과 독일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심씨는 15년간 독일에서 머문 후 돌아와 10여년 전부터 강단 강의와 함께 길 위에서 인문학 강좌로 시민들을 만나왔다. 4년전부터는 '생활 인문학'을 지향하는 '인문지행'을 꾸리고 문학(심옥숙), 서양철학(박해용), 심리학(정진석) 강의를 회원들과 세미나 형식으로 열고 있다.

서점 콘셉트는 '시민이 추천하고 시민이 읽는다'로 잡았다. 지금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은 '누군가가 읽고 추천한 책'이다.

"아직 초창기라 책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서점에 있는 책은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책, 남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을 추천받아 가져다 놓았어요. 인문지행 회원들은 물론이고, 제가 다니던 한 의원 선생님 등 다양한 이들에게 추천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권하는 책인 거죠. 책마다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책 목록은 다양하지만 심리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인문서적과 그림 등 미술과 미학 서적, 여행 서적들을 주로 갖추고 있다. 심씨는 서점에 지역 출판물 코너를 따로 만들었고,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 작가를 발굴하는 것도 관심이다.

"지역 출신 작가들의 흐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조차도 전혀 알려지지 않죠. 지역 사람들이 지역 작가들을 발굴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해요. 지역 작가들이 지역민들과 만나는 장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서점에서는 일주일에 3일(오후 7시30분) 인문지행 정기 강좌를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강좌는 '미하엘 클라스-어는 말장수의 분노, 세상을 흔들다'(심옥숙·월), '인본주의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 3-진정한 사람되기'(정진석·수), '계몽의 변증법-계몽의 빛과 그림자'(박해용·금) 등이다.

장소를 옮기면서 새로운 강의도 시작한다. 화요일에는 '소설, 철학적으로 읽기'(버지니아 울프)를 진행하고 심씨는 미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강좌를 준비중이다. 또 책을 소개하는 강의도 신실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역을 자기 몸으로 알아가는 걷기 프로그램도 지속한다. 지금까지 영산강, 광주천, 황룡강을 걸었고 7월부터는 땅끝에서 시작해 삼남길에 도전한다.

"인문학이라는 게 책이 매개체가 돼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책에 대해 안내받고 책에 대해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또 이곳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얻어가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일상에서는 잊고 사는 것들을 깨닫고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편 인문지행이 한달에 한번 진행되는 '문화예술기회 강좌'(무료)는 예전처럼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리는 25회 강좌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 : 쥘리안-렘브란트와 페르메이르를 중심으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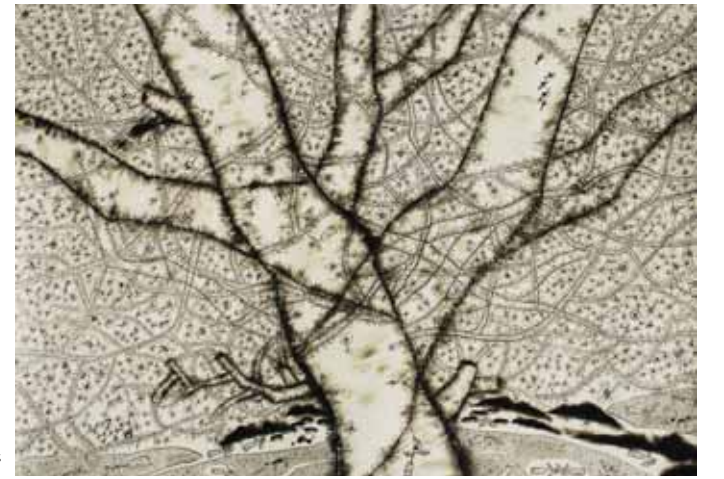
월~토요일(오전 10시 30분~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문의 062-229-0687, blog.naver.com/sp_book.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 강좌 공간과 서가, 지역출판물코너 등으로 구성된 내부.

간결한 모노크롬 통통튀는 생동감 정상섭 개인전

15~21일 무등갤러리



▶'고목나무 꽃피우기'

독특한 조형미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고 있는 정상섭 작가가 흑백 신작을 들고 찾아온다. 정 작가가 15일부터 21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모노크롬으로부터'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무등갤러리가 매년 열고 있는 작가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처음으로 종이에 콩테로 자연을 그린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그동안 작가는 화려한 원색으로 길, 숲, 나무, 새, 바람 등을 경쾌하게 표현했다. 최근에는 변화무쌍한 사회 분위기 전환에 맞춰 콩테의 단색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다. 세부 묘사나 명암은 생략하고 모노크롬(단색)의 선과 색만을 사용해 긴장감과 생동감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숲에 조그만 집과 나무를 그린 작품 '폴아웃 사이로'는 생명에 대한 애정이 듬뿍

전해진다. 좁다란 오솔길 너머에는 바다를 배치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굵직한 줄기와 넓게 퍼진 잎파리에 수많은 꽃이 핀 '고목나무 꽃피우기'는 자유로운 의식세계가 느껴진다. 비움과 채움이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모든 생명에게 작은 애정을 보낸다.

정 작가는 "시각적 직관으로 보면 초현실적이면서도 비대칭적 표현이 의식의 자유로움을 더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을 그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조형언어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씨는 조선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서울, 광주 등에서 개인전 23회를 열었다. 단체전 150여회에 참여했고, 광주시미술대전, 대구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미협, 광주미협에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홍희기자 kimyh@

'여우회' 정기 공연 '그녀는 죽는다'

광주여성연극인연합회

14~17일

공동예술극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배우들이 지난 1995년 광주여성연극인연합회(여·우·회)를 만들었다. 각각의 극단에 흩어져 개별 활동을 해온 배우들이 함께 작품을 준비하며 연극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였다.

회원들은 매년 여성들의 시각이 드러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정기 공연과 함께 지역 아동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며 아동극도 꾸준히 공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인', '달님은 이쁘기도 하셔라', '분장실', '남편이 낱고에 들어갔어요', '여덟 명의 여자들', '희한한 한쌍' 등을 공연했고 '날아라 손아롱', '금도끼와 은도끼' 등 아동극으로 아이들을 만났다.

여우회가 열 네번째 정기 공연작품으로 '그녀는 죽는다'를 무대에 올린다. 14~16일 오후 8시, 17일 오후 7시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양태훈씨가 희곡을 쓴 '그녀는 죽는다'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각자의 시선, 감정, 상황 등에 의해 인간 관계에서 어떤 오해와 갈등이 벌어지는 지도 묻는다.

어느날 '그녀'가 죽고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진다. 하지만 형사는 타살일 거라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수사를 시작한다. 주변 인물의 진술, 의학적 조인과 단서 등 증거를 수집하던 형사는 가장 의심쩍은 인물로 그녀의 친구를 지목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 수혜자가 된 그녀의 남편 역시 의심하게 된다. 한편 그녀의 단편소설집 속 내용은 그녀의 죽음을 암시라도 하듯 현실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인다.

회원인 양정민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정경아, 고난영, 문진희, 정은희, 이현숙씨 등 여우회 회원과 함께 이기인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cafe.daum.net/drama2003. 문의 010-9940-93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